

대표 농정거버넌스 역할 '톡톡'

삼락농정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주요 정책 논의

농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농정거버넌스 '삼락농정위원회 운영협의회'가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박홍식 삼락농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운영협의회에서는 올해 9월까지 위원회 활동사항, 삼락농정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농정현안 과제를 점검하고, 삼락농정 관련 정책 제안과 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락농정위원회는 9월까지 운영소위, 분과회의 등 총 34회 회의와 5차례의 삼락농정 포럼 정책세미나를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양파 수급 및 재값

받기 방안,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 방안, 가축분뇨 냄새 저감 대책, 내수면양식산업 활성화 방안,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방안, 벼 전복10호 활용 방안 등 분야별 주요 농정과제에 대하여 농어업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날 운영협의회는 2018년 농가소득을 증가할 전국 1위, 농가소득 3위, 농가경제 참여액 전국 최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로컬푸드 공급 확대 등 상반기 삼락농정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이후 성과 확산을 위한 삼락농정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 농산물 최저

가격보장제 확대시행 등 시급한 농정현안과 주요정책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누수 없는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삼락농정위원회는 하반기에도 분과회의, 포럼 등을 통해 농정현안에 대한 지속적으로 논의를 추진하고, 2020년 주요 논의 의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발굴·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어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 2020년 시행계획인 '농민공익수당'도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농민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김포에서 ASF 의심축 신고 접수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관리지역인 경기 김포의 한 돼지농장에서 ASF 의심축 신고 1건이 접수됐다고 밝히고 있다.

“상피제 근거 없어... 평등권 침해 소지도”

김승환 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부정적인 입장 재차 밝혀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교육감은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면서 “행정법 법적 근거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인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상피제를 무슨 근거로 도입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립학교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김승환 교육감은 “상피제가 공립학교에만 해당되고 사립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에 따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교사들이 헌법소원도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상피제 같은 제도 없이도)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상피제 같은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일괄적인 상피제

도입에 대해 “모든 교사들이 자녀문제에 관한 출제와 평가과정에서 부정하게 개입할 소지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태도는 교사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상피제를 전면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부모가 희망하면 국공립학교는 정보를, 사립학교의 경우 법안내 정보 또는 공립과전·순회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병하면서 급식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농기원, 태풍피해 농작물 사후관리 철저 당부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에서는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최근 도내 평균 124.5mm의 많은 비가 내리며 침수 및 도복, 파수 나파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침수된 벼는 가능한 일찍 물을 빼주어야 하며 식물체에 묻은 흙양분과 이물질 제거를 깨끗한 물로 씻어 주는 것이 좋고, 쓰러진 벼는 묶어 세우거나 반대편으로 뒤집기를 하는 것이 수량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늦게 심어 수확시기가 많이 남은 논에는 이삭도열병 등 병해에 대비하여 적용약제를 살포해 주는 것이 좋다.

노지채소나 콩 등 밭작물은 쓰러진 농작물을 1~2일 이내에 세워주고,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기는 흙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생육이 불량한 포장에는 요소 0.2%액을 잎에 뿌려 주고, 역병이나 탄저병 등 병해충 방제를 농약 안전사용 기준에 맞게 실시한다.

과수는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후 적용약제를 발라 주고, 쓰러진 나무는 토양이 찢어 있는 상태에서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우고 보조지주를 설치한다.

유실되거나 매몰된 곳은 빨리 정비하고, 낙엽이 심한 나무는 알맞게 과실을 숙여 내어 수세가 회복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농업시설물의 경우 침수된 하우스

는 신속하게 배수하고, 깨끗한 물로 농작물을 씻어주어야 하며, 병해충 긴급 방제를 실시한다. 침수된 축사도 신속하게 물을 빼고, 가축을 깨끗한 물로 씻어 주며 축사 소독을 실시하여 질병을 예방한다.

침수된 농업 기계는 시동을 걸지 말고 물로 깨끗이 닦은 후 습기를 제거한 다음 기름칠하고 수리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다음 사용해야 하며, 감전사고 등 농업인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북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제17호 태풍 타파가 물러간 후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농업인들의 영농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시행

전북도, 14개 제공기관 선정... 취미여가·직업탐구활동 등 지원

전북도가 청소년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9월부터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먼저 전주, 군산, 익산 등 6개 시군에서 시행되며, 기 선정된 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를 통해 184명에 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방과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시간에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등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경감과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전북도는 올해 4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9월에 14개 제공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서비스제공 준비를 마쳤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만12세~17세까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대상이며, 매달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 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내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그룹(2~4명)을 형성하여 취미여가활동, 직업탐구 활동, 자립준비활동, 관람체험활동 등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CEO 모여라!

26일 원광대서 찾아가는 '청년창업 LOG-IN' 행사 개최

스타 CEO의 강연, 멘토링 등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찾아가는 청년창업 스타트업 '청년창업 LOG-IN' 두 번째 행사가 26일 원광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찾아가는 청년창업 스타트업은 전라북도 주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 창업을 낚아채려하거나, 창업에 관심이 있지만 창업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학생들을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토크콘서트, 멘토링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전북대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행사로 '청년창업 LOG-IN with 인문학'이란 주제로 창업에 인문학을 결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날 창업가 성공스토리 강연에는 MBC 북면가왕 황재근 디자이너가 참석하여 창업의 어려움과 해결 과정에 대해 본인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그밖에도 창업의 두려움과 거부감 극복을 위해 '인문학'을 결합한 '소

셜창업, Mind up', '창업 Talk Concert', '창업 Potluck party(선택한 멘토와 도시락을 먹으며 진행하는 밀착형 컨설팅)' 등이 진행되어 창업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우리도 청년들이 꿈을 찾고 미래를 디자인하여 우리 지역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창업에 관심 있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유익한 시간을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